



# 자료삭제로 허위 종결 실종사건 또 있었다

제주경찰청, 담당경찰관 직무유기 등 혐의 긴급체포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 삭제·유사 정황 확인”  
실종시스템 개선 착수… 뒤늦은 집중수색 행방 묘연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종 3개월 만에 뒤늦은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불거진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 시스템에 실종여성과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 삭제된 것에 이어 또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긴급체포했다.

22일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28분쯤 제주시 일원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달 2일 해제 처리했던 또 다른 실종사건이 장미란 (37)씨 실종사건과 유사 사유로 허위 종결한 사실을 지난 21일 추가 확인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주거지에서 외출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장씨의 동거인에 의해 당초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이뤄졌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받은 A경장은 신고인에게 “장씨와 통화를 했으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전달했고 2시간30여 분만인 밤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최초 실종신고 시 관할 파출소가

신고인을 대면하고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값을 통해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으나 당시 A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함에 따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이 지난 7월 19일 재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A경장이 허위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한 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장씨의 통신기록 조회 결과 1차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통화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경찰은 실종 관련 정보가

축적된 경찰 내부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의 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경찰은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의 자료가 입력됐다 실종사건 종결과 함께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어 A경장이 또 다른 실종사건에서 장씨 사건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날 A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경장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 관리·감독의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찰은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도 들어갔다.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은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담당경찰관이 판단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돼 있어서다. 경찰이 이번 에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의 골자는 실종사건 해제 과정에 관리자의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담당자가 실종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토록 ‘이중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해경·소방·자치경찰 등과 함께 지난 5월 16일 오전 9시44분쯤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제주시 한림항 일대와 그 주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되는 등으로 장씨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수색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휴일인 22일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서 경찰이 실종자 장미란씨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 허위종결 경찰 담당 실종 남성 시신 발견

22일 수색 중 실종 51일 만에… 관련 기록 삭제 확인

장미란 (37)씨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경찰관이 말아 임의로 종결처리한 다른 실종사건의 당사자가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은 전날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남성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B씨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장씨 실종사건을 접한 뒤 지난 21일 재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의 담당자가 A경장을 확인하고 허위종결한 사실

을 파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실종 51일 만인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B씨의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양유리기자

##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철저한 전수조사를”

23일 제주청서 수사회의 주관

한 총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경찰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전국 실종사건 처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오전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수사회의를 주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본부장은 A경장의 허위 보고로 종결된 실종사건 부실 수사에 대해 질책하고 추가 수사·보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찰청이 전국 실종사건 처리에 대해 허위 종결 처리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제주청에도 철저한 전수조사와 강도 높은 현장수색을 지시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이날 제주시 한림읍 수색 현장을 방문해 수색 범위

와 진행상황 등도 함께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내가 가족을 찾는 마음으로 실종자의 안전과 소재 확인을 위한 단서 발견에 노력해 달라”며 “실종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도 경찰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경찰이 실종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어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에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며 “실종자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는 장난전화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 실종자 가족에 수 차례 장난전화 10대 검거

경찰,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제주에서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 (37)씨 사건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 17회에 걸쳐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 A씨를 스톱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내렸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실종자 및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상심에 빠져있는 실종자 가족을 향한 장난전화와 가짜뉴스 등 2차 가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들의 에타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도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실종자께서 하루빨리 그리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양유리기자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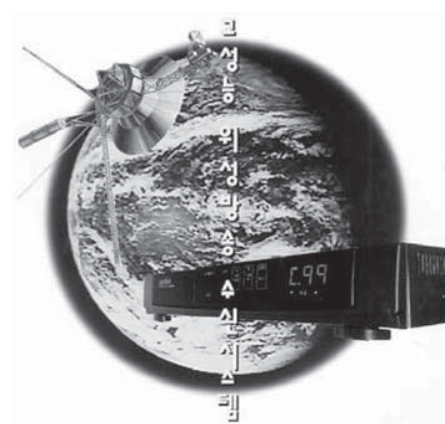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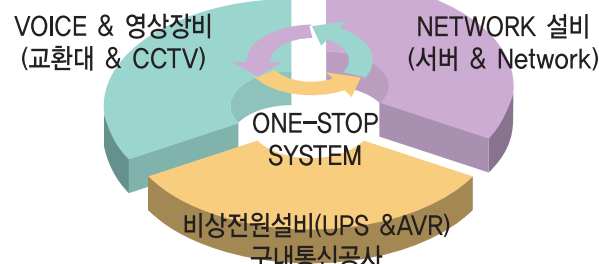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